

니-체와 現代文化

-그들의 生日을 記念하야-⑦

金亨俊

우리는 니-체의 이러한 藝術的 人間 가운데서 멀서 그의 超人的 傾向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藝術的 人間은 交渉하는 生의 意志를 스스로 統制하는 人間 그리고 生의 苦惱속에서 그 苦惱까지 含有한 生을 全體적으로 肯定하려는 人間. 이것이 當時 니-체의 理想하는 偉대한 人間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藝術的 人間이 반듯이 偉대한 人間이 아님을 그는 차츰 自覺하게 되었다. 實際에 있어서 藝術的 人間은 現實을 그대로 享受치 못하고 그 充溢하는 生의 意志, 즉 生의 苦惱 때문에 現實을 迴避하야 假象의 世界에서 生의 肯定을 어드려는 非現實的 人間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逃避的 肯定이 偉대한 生이 될 수 없다. 차라리 現實을 緻密하게 認識하는 것이 未熟한 藝術, 特히 音樂的 直觀보담 必要할 것이다. 따라서 逃避的인 藝術的 天才보담은 차라리 自由思想家가 現實的 生을 積極적으로 肯定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 니-체는 第二期의 實證主義에로 轉向하게 된 것이다.

藝術的 空想의 陶醉에서 깨어난 니-체는 로만티즘의 反對로 實證主義에 기울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實證主義에의 轉向이 그가 探究하는『偉대한 人間』의 理想을 □□케 한 것은 決코 아닌 것이다. 오직 偉대한 人間이 藝術的 天才로부터 自由思想家에게로 그 概念이 옮겨질 뿐이다.

니-체가 實證主義的 傾向을 갖게 된 것은 直接으로는 그의 友人 바올·레~를 通하야 當時 英佛서 風靡하든 實證主義의 影嚮을 받게 되었으며 더욱이 獨逸안에서 全盛을 呈하든 自然科學의 影嚮을 받은 까닭이며 그 우에 內的으로든 □□할망정 表面으로는 帝國統一의 基礎우에서 □樂慾에 불타는 當時의 獨逸國民의 現實的 意慾을 본 까닭이라 할 것이다. 오직 希臘古典에 精神을 빼앗겼든 니-체는 一八八〇年 以來로는 自然科學, 特히 따-윈의 生物學 등을 읽기에 餘念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야 藝術的 直觀을 버리고 科學的 認識을 主張하게 되었다.

『보담 노픈 文化의 特徵은 嚴密한 方法을 가지고 發見된 微細한 外觀을 裝飾치 안흔 眞理를 形而上學的 藝術的 時代 및 人間으로부터 發生한 우리를 憤雜하게 眩惑시키는 誤謬보담도 보다 높히 評價되는 것이다. 外觀을 裝飾치 안는 眞理의 評價와 科學的 精神과가 支配하게 되자말자 形式의 尊重者들은 勿論 美와 壯美에 對한 自己의 尺度로서 먼저 嘲笑하는 조흔 根據를 가질 것이다』 『人間性이란 배는 물이 기르면 기풀수록 만흔 짐을 실을 수 있다. 人間은 기피 생각하면 할수록 차츰 細微하게 느끼며 차츰 自己를 보다 높게 評價하게 된다. 그와 動物과의 距離는 차츰 커진다. 그는 차츰 世界의 現實的 本性和 그것의 認識에 接近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科學에 依하여 行하고 있다』 이리하여 音樂的 直觀만이 世界의 本質을 把握케 한다든 니-체는 이제 와서는 科學만이 世界의 本質을 認識할 수 있다고 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審美的 直觀의 代身에 史物學的, 歷史的 考察이 그의 哲學의 唯一한 方法이였다. 여기에서 니-체는 비로소 人間은 固定的인것이 아니라 歷史적으로 流動하는 것이란 見解를 갖게 되였다. 『人間에게 잇서 偉大한 것은 그가 目標가 아니요 한 개의 橋梁이란 것이다. 人間에게 잇서 사랑스러운 것은 人間은 逸波하며 沒落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人間에 對한 歷史의 利□』를 생각하게 되였다. 우리는 歷史를 세 가지 利益때문에 取하게된다. 첫 재, 歷史는 活動하려는 者, 強力하게 싸우려는 者가 그 當時에서 摸節者, 教師, 慰安者를 엿지 못했을 때 그것을 歷史的 事蹟에서 求키 위하야. 둘 재, 歷史는 保管者, 崇拜者들이 自己의 微弱과 貧乏을 歷史 上의 偉大한 人物들의 魂속에 悽息시킴으로서 그 品位와 尊嚴을 維持하려할 때. 셋 재, 歷史는 苦惱하는 者, 解放하려는 者가 生存을 爲하야 過去를 法廷에 끌어내여 審判하려 할 때에. 必要한 것이다. 一見 實用主義的인 이러한 니-체의 優越한 人間觀이 潛在함을 看過했기는 안된다. 人間이 動物과 區別되는 것은 動物은 오직 瞬間에 沒入하는 反對로 人間은 以上の 必要로서 過去, 卽 歷史를 가지는 點이다.